

아시아공동체론

13 불어불문학과 조한정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아시아의 평화 또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일본의 자위대 위협, 영토 분쟁 등 많은 면모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및 아시아가 하나를 이루고 평화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우리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적 정세를 파악하고 세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 공동체론은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정치, 안보 및 공동체 가능성을 두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글을 통하여, '아시아 공동체론' 강의란 무엇이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 차례로 분석하고 진정한 아시아 공동체가 수립되기 위해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구조와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난 30년간의 경제상황과 한국이 앞서 나아갈 방향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를 어떻게 타개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이를 위해서 아베노믹스로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세 개의 화살(Abenomics: 3 Arrows)이라 불리는 주요정책으로 일본은 이러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우선 설명하자면 (1) 금융정책(Aggressive Monetary Policy) (2) 재정통화정책(Fiscal Consolidations) (3) 성장전략추진(Growth Strategy)으로 말할 수 있다. 이 아베노믹스는 일본 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정책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있다. 23년 만에 유효구인배율이 고수준에 이르렀으며, 실질GDP가 연율 3.9%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많은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이는 일본의 체제에 맞춘 좋은 방안이지만, 결과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만큼 리스크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답습을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지 고려하고 한국의 체제에 맞춘 새로운 노믹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 문화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은 지리적으로 유사한 만큼 서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불교·유교·한자 등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각국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은 주자학을 집대성하여, 이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였고, 동시에 국가 이념으로써 통치기반으로 삼았다. 바다를 건너 위치하고 있던 일본은 이 두 국가와 달리 주자학이라는 이념이 도입되면서 이 개념과 다른 일본의 배경 때문에 지배적이었던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일본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빠르게 근대적 국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근대국가를 구축한 일본은 대내외적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하여, 섬나라로써 대륙을 탐하기 위하여 등 많은 이유로 한국, 중국에 대한 침략야욕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종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문제와 역사적 문제에 대한 반성, 사죄의 부재 등으로 많은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역사는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를 초반에 다시 구축하게 되었을 때는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역사문제를 거론했을 시 경제협력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뤄두게 되었다. 그러나 80년 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다시 역사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사죄를 표명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죄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두 국가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우리는 정경분리원칙을 지키고, 지속적인 한국과 일본의 한일금융협력 등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 받고 있는 공동체인 EU를 모델로 삼아 동아시아에 경제와 안보의 평행성을 가지도록 해야만 한다. 후발공동체라는 이점을 가지고 EU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세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하나라는 개념을 각 국에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한반도의 불안해결과 지역의 미래부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이론과 지도자의 결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 이론과 훌륭한 지도자로 인해 세계가 흐름을 만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인재와 이론이 나타나 한국이 동아시아를 이끌어 나가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아시아 공동체론, 이 수업을 통하여 아시아의 정세를 파악하고 아시아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국제적인 정세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상황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이 흐름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내외적인 대응능력을 길러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국내의 체계를 견고히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시대의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는 기회를 가져 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심도 있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